



11. 너도 알다시피 거기가 가장 큰 서점이잖아

학습목표 '다시피'를 사용하여 어떤 동작에 가까움을 표현할 수 있다.

학습내용 -다시피



생각해 봅시다



- 헌 책방에서 중고 도서를 구입해 봤어요?
- 책을 여러 번 읽어서 내용을 거의 외운 적이 있어요?



본문

- 민** (지호와 민이 구하던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음.)
며칠 전부터 내가 찾던 책 말이야. 어제 서점에 갔는데 절판이 되는 바람에 못 샀어.
- 지호** 대형서점에 가 보지 그랬어?
- 민** 안 그래도 K 서점에 갔어. 너도 알다시피 이 근처에서는 거기가 제일 크잖아.
- 지호** 거기에도 없었어? 따로 구할 방법은 없대?
- 민** 혹시나 해서 출판사에 전화해 봤는데 얼마 전에 재고 정리를 다 해 버려서 여유분이 없다고 해.
- 지호** 그렇구나. 그런데 대체 무슨 책인데 그렇게 공들여서 찾는 거야?
- 민** 사실은 그거 철수한테서 빌린 책이야. 철수가 거의 외우다시피 할 정도로 읽던 책이거든. 작년에 빌렸다가 돌려주는 걸 깜빡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
- 지호** 가족들한테는 물어봤어?
- 민** 물론이지. 내가 잘 챙겼는데 어디에 뒀는지 도저히 생각이 안 나.
- 지호** 철수가 알면 속상해 할 텐데. 그러지 말고 온라인 서점이나 헌책방도 한번 찾아보는 게 어때?
- 민** 그래야겠다. 난 헌책방은 생각도 못했는데 고마워.

도입 질문

1. 여러분 서점에 자주 갑니까? 서점에서 책을 자주 구입합니까?
2. 주로 어떤 책을 구입합니까?
3. 헌책방에 간 적이 있습니까? 또는 중고 도서를 구입해 봤습니까?
4. 헌책방은 어떻습니까?
5. 중고 도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중고 도서를 구입할 생각이 있습니까? 이유는?
6. 여러분이 좋아해서 여러 번 읽었거나 하도 많이 읽어서 거의 외울 정도가 된 책이 있습니까?

본문 학습 순서

- 1)도입 질문을 한다.
 - 2)본문을 듣기 전, 도입 그림을 보고 본문 내용을 유추해 본다.
 - 3)자막을 보지 않고 듣는다.
 - 4)이해 질문 1(포괄적인 내용 파악)
 1. 민은 어제 간 서점에서 왜 책을 못 샀습니까?
답 : 절판이 되어서
 2. 민이 찾는 책을 구할 방법은 있습니까?
답 :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유분이 없어서.
 3. 민이 그 책을 꼭 사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 철수한테 빌린 책이기 때문에 돌려줘야 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다.
 4. 민의 말을 듣고 지호가 한 말은 무엇입니까?
답 : 온라인 서점이나 헌책방도 찾아 봐.
 - 5) 위의 질문은 대화 순서로 되어 있으므로 학생들이 답을 찾기 어려워하면 그 부분만 듣고 pause 후에 다음 질문을 할 수 있다.
 - 6) 내용 이해 질문을 하고 다시 듣는다. 1. 민은 K대형 서점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2. 민은 철수의 책을 보관하고 있습니까?
 - 7)위의 질문에 대한 답을 종합해서 들어본다. 이때 핵심이 되는 알다시피, 외우다시피 의 문장을 (이 부분만 다시 듣기) 강조한다.
- *상황(학습자의 수와 학습 정도, 교실 상황 등)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내용 이해 질문

(1) 지호는 K서점이 크다는 것을 몰랐다. (O, X)

답 : (X) 민이 '알다시피'라고 말했으므로 지호는 K서점의 크기에 대해 알고 있었다.

(2) 민은 1년 동안 철수의 책을 보관하고 있었다. (O, X)

답 : (X) 민은 작년에 빌린 철수의 책을 돌려준다는 것을 잊고 있었다.



어휘

여유분	剩余部分	챙기다	收起来, 收藏; 准备好, 备齐
대체	到底, 究竟	두다	搁、置、放
공들이다	花功夫, 下力气	도저히	无论如何, 怎么也, 根本无法.....
아끼다	珍惜、爱护; 节约	속상하다	伤心
돌려주다	归还	헌책방	旧书店

대체=도대체 : (주로 의문을 나타내는 말과 함께 쓰여) 전혀 알지 못하거나 아주 궁금하여 묻는 것인데

- 대체 누구 선물인데 그렇게 신경 쓰는 거야?
- 그 사람은 대체 뭐 하는데 아직도 연락이 안 되니?
- 아무리 질문해도 대답을 안 하니까 도대체 궁금해서 안 되겠어.

(확장) 대체=도대체 : (주로 부정을 나타내는 말과 함께 쓰여)
유감스럽게도 전혀

- 지나 : 가을인데 대체 입을 옷이 하나도 없어.
- 할머니: 요즘 애들은 대체 예의를 몰라요.
할아버지 : 그래도 우리 손주들은 예의가 바르니 걱정 안 해요.

공들이다 : 어떤 일을 이루는 데 정성과 노력을 많이 들이다.

- 청소를 할거면 대충하지 말고 좀 공들여서 해라.
- (속담) 공든 탐이 무너지랴.
- 이걸 제가 공들여서 만든 떡케이크예요.

챙기다 : 필요한 물건을 찾아서 갖추어 놓거나 무엇을 빠뜨리지 않았는지 살피다.

- 캠핑을 갈 때에는 이것 저것 챙길 게 많습니다.
- 너무 걱정 마세요. 동생은 제가 잘 챙길게요.
- 이상하네요. 아까 분명히 열쇠를 챙겼는데 없어요.

도저히 : (부정하는 말과 함께 쓰여) 아무리 노력해도

- 자야겠다. 졸려서 도저히 계속 공부할 수가 없다.
- 그 음식은 너무 메워서 도저히 먹을 수 없다.
- 선생님, 이 수학 문제는 너무 어려워서 도저히 못 풀겠어요.

(심화) 아무리: (-아/어/여도'와 함께 쓰여) 정도가 매우 심함을 나타내는 말

-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시험 성적이 안 올라요.
- 아무리 물을 많이 마셔도 목이 말랐다.



문법학습

-다시피

어떤 동작과 같거나 가깝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너도 알다시피 거기가 가장 큰 서점이잖아'는 말하는 사람은 듣는 사람도 알고 있는 것과 같이 '거기가 가장 큰 서점'이라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수가 거의 외우다시피 할 정도로 자주 읽던 책이거든.'은 철수가 실제로 책을 다 외운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아끼면서 자주 읽은 책이라는 의미입니다.

- ① 너도 알다시피 내가 춤이라면 전문가잖아.
- ② 잘 알려져 있다시피 제주도는 한국에서 가장 큰 섬입니다.
- ③ 학생 여러분들이 들으셨다시피 다음 주에는 중간고사가 있습니다.
- ④ 게임에 몰두해서 일주일 동안 게임방에서 살다시피 했다.

문장 만들기

'-다시피'를 사용하여 후행문에 알맞은 선행문 만들기

우리가 알다시피 / 알았다시피 _____.

여러분도 보다시피 / 봤다시피 _____.

모두 듣다시피 / 들었다시피 _____.

너도 느끼다시피 / 느꼈다시피 _____.

같은 노래를 여러 번 들어서 _____ 다시피 해요.

지호는 야구장에 거의 매일 가니까 야구장에 _____ 다시피 했어요.

민이는 걸음이 정말 빠르는데 걷는 것이 아니라 _____ 다시피 해요.

대화 연습하기

엄마: 마이클? 마이클이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가 또 있다는 말이지?

지나: 엄마도 아시다시피 마이클이 좀 흔한 이름이잖아요.

교사: 여기 보다시피 칠판에 두 개의 문장이 있습니다. 둘 중 의미가 잘못된 문장은 무엇일까요?

지나: 유리아! 너 운동화 샀네!

유리: 응! 너도 알다시피 이거 내가 무척 갖고 싶어했잖아. 아빠가 선물로 사주셨어.

지호: 이분이 네 할아버지셔? 무서우신 분 같아.

민: 응. 너도 사진에서 느꼈다시피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좀 엄격하신 분이야

'-다시피'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

1.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지각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로 '알다/보다/듣다/느끼다'의 동사와 함께 쓰인다.
 2. 실제로 그 동작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동작과 거의 같거나 매우 비슷하다.
- '-다시피 하다'의 꼴로 사용된다.

수업에서 동사 제시 순서

먼저 1의 의미로 사용될 경우
현재형 먼저 → 알다, 보다, 듣다, 느끼다 → 과거형 → 높임말
2의 의미로 사용될 경우
반복, 꾸준함의 의미가 있는 동사와 부사를 연결해 제시하고 학생들이 '-다시피'에 쓸 동사를 찾게 한다.
(여러 번) 읽다 → 외우다시피
(매일) 가다 → 살다시피
(조용히, 오래) 자다 → 죽다시피
(빠르게) 걷다 → 뛰다, 날다



심화학습

1. 알다, 듣다 등의 지각을 나타내는 동사와 잘 어울린다. 듣는 사람이 알거나 듣거나 느끼고 있는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할 때 쓰는 말이기 때문에 듣는 사람(청자)이 있을 때에만 사용하고 듣는 사람이 없는 혼잣말로는 쓰이지 않는다.

- 너도 알다시피 내가 요즘 많이 바쁘잖아.
- 너도 듣다시피 우리 할머니는 노래를 잘 부르서

2. 듣는 사람을 반드시 지칭하지 않아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모두가 지각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을 말할 때 사용한다.

- 아시다시피 이번 사건은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3. 상대방이 지각하는 내용이 과거에 관한 것이라면 ‘았/었/였다시피’를 쓴다.

- 너도 알았다시피 내가 지난 주에는 많이 바빴잖아.
- 너도 들었다시피 우리 할머니는 정말 노래를 잘 부르시지?

4. 어떤 동작에 가까움을 나타내는 의미로도 쓰인다. 동사에 붙어 실제로 그 동작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동작에 가깝게 함을 나타낸다.

- 나는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한다. 매일 거의 하루 종일 도서관에서 지낸다.
- 언니는 다이어트를 한다고 굶다시피 한다. 거의 아무것도 안 먹는다.
- 어제는 숙제가 많아서 거의 밤을 새우다시피 했어. 겨우 30분 잤어.

‘-다시피’와 의미가 비슷한 문형
-는 것과 같이/마찬가지로
예) 너도 알다시피 → 너도 아는 것과 같이/마찬가지로

‘-다시피’에서 듣는 사람이 생략된 경우
예) 여러분, 모두, 다, 우리, 너와 나, 같이 + 다시피

‘-았/었/였다시피’
하지만 ‘-다시피’는 이미 지각한 내용과 같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시제와 함께 쓰일 수 없다.
내일 학교에 갈 거다시피 (X)

‘-다시피 하다’의 형태로 사용된다
·
살다시피 → 정말 도서관에 사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매일 거의 하루 종일 도서관에서 지낸다



1. 빈 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쓰십시오.

대체, 공들여서, 아끼는, 챙겨야, 도저히

- 1) 대체 무슨 소식을 들었길래 그렇게 놀라는 거니?
- 2) 산에 갈 때 음식과 장비 등을 잘 챙겨야 한다.
- 3) 안 물어 보려고 했는데 너무 궁금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 4) 이 시계는 할아버지께 받은 것으로 내가 정말 아끼는 것이다.
- 5) 그 감독은 공들여서 찍은 이번 작품에 관객이 몰리자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해설 : 1) 대체 무슨 소식을 들었길래 그렇게 놀라는 거니?
 2) 산에 갈 때 음식과 장비 등을 잘 챙겨야 한다.
 3) 안 물어 보려고 했는데 너무 궁금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4) 이 시계는 할아버지께 받은 것으로 내가 정말 아끼는 것이다.
 5) 그 감독은 공들여 찍은 이번 작품에 관객이 몰리자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2. 빈 칸에 알맞은 단어를 골라 ‘다시피’를 사용하여 쓰십시오.

살다 자다 굶다 날다

- 1) 친구가 매일 노래방에 가서 살다시피 한다.
- 2) 다이어트를 하느라고 굶다시피 했더니 순식간에 건강이 나빠졌다.
- 3) 버스를 놓칠까 봐 날다시피 뛰어갔다.
- 4) 감기 약을 먹고 하루 종일 자다시피 하니 감기 기운이 떨어진 것 같다.

해설 1) 노래방에 사는 것처럼 자주 드나든다는 의미다.
 2) 굶는 것과 같이 밥을 제대로 안 먹어서 건강이 나빠졌다.
 3) 마치 날아가는 것처럼 빠르게 뛰어갔다.
 4) 종일 자는 것처럼 푹 잤더니 감기가 나은 것 같다.
 이와 같이 ‘다시피 하다’의 형태로 종종 쓰인다.

1. 어휘 연습

- ‘대체, 도저히’는 문장 만들기를 하여 부사의 의미를 알고 있는지 확인한다.
- 2) ‘챙기다’의 활용형을 확인한다.
- 3) 아끼다
- (어휘 설명 참고)
- 5) ‘공들이다’의 활용형을 확인한다

2. 문법 연습

- 문법 정보를 다시 확인한다.
 - [다시피]
 - 상대방이 지각하는 것과 같음
 - 어떤 동작에 가까움. 주로 ‘-다시피 하다’의 형태로 쓰임.
 - 주어진 단어는 한번만 사용할 수 있고 문맥에 맞게 문법을 사용해야 한다.
 - 학습자가 문장을 완성할 때는 학습자 급에 알맞은 문형과 어휘를 사용하도록 한다.
 - 제시된 문장을 가지고 학생들의 경험을 말하도록 하다.
1. 노래방에서 살다시피 자주 노래방에 간 적이 있습니까?
 2. 언제 굶다시피 했습니까?
 3. 날다시피 걸은 일
 4. 자다시피 한 경험
- ‘다시피’를 가지고 부정형도 만들어 본다.

3. 다음을 듣고 이어지는 말을 고르시오.

1) (교사와 마이클, 할아버지)

교사 : 마이클, 할아버지께 반말을 쓰면 안 돼. 어른에게는 높임말을 사용해야 해.

마이클 : _____

- ① 보셨다시피 할아버지께 반말을 했어요.
- ② 반말을 하다시피 해서 기분이 나쁘셨나 봐요.
- ③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전 아직 높임말이 서툴러서요.

2) (사내 대화)

성인 남 :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은 어떤가요?

성인 여 : _____

- ① 설명회에서 들으셨다시피 폭발적입니다.
- ② 보셨다시피 제품의 질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③ 말씀 드렸다시피 소비자가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겁니다.

3) (학교에 가려는 지호, 부르는 엄마)

지호: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엄마 : 어? 오늘은 왜 이렇게 일찍 나가니?

지호 : _____

- ① 알다시피 저는 학교에 가지 않을 거예요.
- ② 어제 말씀 드렸다시피 이번 주 청소 담당이잖아요.
- ③ 아시다시피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가는 게 나아요.

3. 듣기 연습

정답 이외의 대답을 학습자가 스스로 만들어 보도록 한다.

1. 높임말, 반말에 대해서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에는 뭐가 있을까요?

2.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은 어떤가요? 무슨 말을 했을까요? 무엇을 알고 있었을까요? 무슨 말을 들었을까요?

3. 엄마의 질문에 여러분이 지호라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과제

토론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토론을 할 때 상대방이 이미 알고 있거나 들은 것, 느낀 것을 확인하여 말할 때 ‘-다시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연을 파괴하는 존재인가>라는 주제에 대해서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자신의 입장을 정하고 토론문을 써 봅시다.

- 찬성과 반대 중에서 하나의 입장을 선택해야 한다.
- ‘-다시피’를 사용해야 한다.
- 토론문이므로 ‘-(스)입니다’로 쓴다.
- 400~600자 정도로 써야 한다.

예시답변

인간은 본래 자연과 공존하는 생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두 아시다시피 지금 자연은 인간 때문에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는 존재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는 예는 우리 주변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하 생략>

도입 질문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

토론 주제에 대해 같이 이야기 한 후 다음에 찬성과 반대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찬성의 경우 →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는 예에 대해서 예를 들어 본다.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은 무엇인가?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유를 세 가지 정도 써 본다.

반대의 경우 → 인간은 자연을 파괴하는 존재가 아닌 예를 들어 본다. 이유를 세 가지 정도 써 본 후 발표